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어린이에 관한 영적 교훈

성경: 마태복음 18장 1-7절

Tag: 어린이주일,어린이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18:1-7)

순전한 어린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속삭임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금요일, 우연히 ‘우리 이혼 했어요<sup>2</sup>(일라이와 지연수)TV조선 금PM10’ 란 프로를 시청하게 되었다. 중간 썸 찝막한 부분이었는데, 2년 전에 이혼한 젊은 아빠가 7살 된 아들을 재회하는 장면이었다. (설교를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7살 어린 아들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을 보였다. 그런데 놀랄만큼 예절 바르고 사려깊이 깊은 아이였다.

아마도 짐작에 시댁 어르신들과 며느리의 가치관 차이로 아이 엄마

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는 것 같고,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에게는 버거운 스트레스를 풀어냈다.(나는 시댁의 ATM, 감정쓰레기통, 너네 집 로봇, 돈 안주고 사용하는 하녀-우리 가족 사기꾼으로 만들지마.) 대부분의 아내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면서 상황을 극복하게 마련이지만, 대부분의 젊은 남편들은 아내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젊은 아내는 시댁 입장에서는 철없는 아내였고, 남편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리는 느낌을 받게 하는 아내였고, 며느리에게 시댁 어르신들은 버겁고 간섭이 심한 사기꾼 같은 분들이었다.

두 진영간의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을 견디어 낼 정신적 영적인 힘이 젊은 부부에게는 없었다.

결국 두 진영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거들 수 없는 젊은 아빠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가장 큰 고통은 아들과의 이별이었다. 아이는 아이대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아이는 이번 TV 프로를 통해서 그 오해를 씻어냈다.

그런데 7살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내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의 입에 예언의 말씀을 넣어 주는 것 같았다.

‘아빠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빠가 자고 가면 좋겠다, 다 같이’

‘엄마, 아빠, 나. 셋이 다 같이 살 거예요’

‘미국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

엄마의 말,

‘민수야, 아빠가 엄마를 버렸어’

아빠의 말,

‘네가 민수에게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

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말 실수... (하지만 두 워딩 모두 맞는 말.)

결국 시부모가 불을 피웠지만, 둘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이혼을 결심하게 됨. 끝은 해피엔딩이라고 들었다.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었다.

나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었다.

어머니도 자신이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미안해서인지 어머니는, '내가 너에게 어떤 억울한 말을 해도 너는 남편이 다독겨려 주고 위로해 주니까 괜찮아, 근데 나는 남편이 없다.(나는 아들을 빼앗긴 기분이야. 이 표현하기 힘든 억울한 심정을 위로해 줄 남편이 나는 없어) 그러니 내가 너를 억울해도 돼' 그러나 아내는 이런 이상한 말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고 양금이 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었다. 기도의 힘이였다. 하나님 사랑의 힘이였다.

어린이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엉뚱하고 철없는 말 이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도 있다. 철이 들면서 점점 사라지기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자기 입장에 유리하도록 말을 만들어내고, 손해가 되는 말은 미꾸라지 같이 빠져 나가는 말을 한다.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돌이키라고 하셨다.

아이로 돌이킬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수’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버지의 음성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이다. (그러면 미국 가지 마!)

마귀의 거짓된 음성은 ‘하나님은 없다.’이다.

그 말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에 홀린 듯, 거짓말 투성이인 진화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첫단추 거짓말의 위력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적이 없단다’라는 말 한마디를 받아들인 모든 영혼은 곧바로 어린 아이의 순전한 마음을 되찾는다. 그리고 곧바로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창조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경탄과 신비로움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 기적이고 가슴 가득한 경험이다.

**\*큰 것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시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작은 어린이를 불러서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예외 없이, 특권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방법은 아주 작은 어린이들도 다 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는 뜻이다.

-모두 어렸을 때 해 보았던 것이다. 생소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도 **보잘 것 없지 않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정하는 것이다.

-Just like little child. very easy.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어른이 (속으로는 상대방을 알아보면서) 겉으로는 겸손을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아니면 예절상, 도덕적인, 의례적으로 겸손한 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성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뜻하는 그런 겸손, 정말 좋고 마땅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야 하고 말하신 겸손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유일한 한가지 겸손을 말하는데, 그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사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36-37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6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자들에게 이르시되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막9:36-37)

### \*안으시며!

- 영접함이란, 남이 아닌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 이제는 서로 알게 되는 사이. 친밀하고 귀하게 여겨 예를 갖추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관계.
- 하인을 들이거나, 업무를 위한 방문객을 맞이하는게 아니라
- 내 이름으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수님의 명으로 알고 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 하나를; 한사람처럼. 한꺼번에 여러명 대하듯이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말고. 여러 손님 받으려면 중요한 손님은 기다려야 하고, 소홀하게 마련. 그러지 말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영접하라.(배민도 단독)
- 곧 나를 영접함ियो;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여기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믿고 영접하라.

- 나를 보내신 이;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 많은 사람이 순전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 이미 가지고 있는 이념을 기초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념 선전용으로 하나님이 이용된다.
-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어린이 답지 않게)
- 대부분 그는 공손하고, 겸손하며, 목사를 존중한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어린이처럼 순전하게 받지 못한다.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 실족하게 하는 것;아들을 미워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매우 진실하고 솔직해서 직설을 좋아하고 돌려 말하지 못하는 성격. '아빠는 아들 미워한다.' 그러면 아들은 실족한다.
- 차라리 아들을 미워하게 된 이유를 들려주어라.

\*부모의 배신은 아이를 실족하게 한다.

-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경험은 매우 충격적인 것.
-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함이 가장 중요함.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유일한 한가지 겸손을 말하는데, 그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접함이란, 남이 아닌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세심하고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케 하소서.

-자녀들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함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가정생활 성경공부

성경: 에베소서 5장 22-6장 4절

Tag:

##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복종함; 이 구절이 아내를 아랫사람이나, 하녀 다루듯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주께 하는 복종은 가정에도 신성한 하나님의 법도가 존재한다는 뜻이지, 남편의 뜻과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적으로는 남녀가 동등함)

-주님은 가장 온유하시고 합리적이시고, 모든 율법 위에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러므로 유교적인 의미로서 22절을 이해하는 것은 곤란함.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서신은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음. 이념론자들로부터 성경 전체가 무시당하는 처지.

-유교, 불교,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여성관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라.

-병어리 3년의 의미는 며느리가 시댁의 풍습, 말사용, 식구들끼리의 관계 연구에 3년 걸린다는 의미이지, 종살이 3년을 의미하지 않는데, 나쁜 시어미들이 그렇게 사용함.

-우리나라에는 양반은 많지 않고, 양반 흉내 내는 못된 양반들이 많다.

-이념 논리는 그런 엘리트 양반들까지 한꺼번에 악한 적폐로 몰아간다는 점.

-여성신학의 대두. 여성은 죄인?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덜 죄인인가?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부부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나, 이념이나, 문화나, 태도나, 관습이나, 성격이나, 재산이나, 자존심 등이 원인인 것.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정리는 끝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것임.

-그러므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주도권에 관해서 서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 사이에 암묵적인 경계선을 그려 놓고 서로 침범하지 않으려고 해야 함.

-핵심 가치는 질서임. 서로의 자존심을 건들지 말아야 함.

-서로 상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나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됨.

####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복종.

-누가 주도권을 잡든, 부정 앞에서는 누구든 항거하게 마련.

-남성은 이성적, 사무적. 여성은 감성적, 관계적. 여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남성이 보고, 남성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성이 봄.

-둘은 한몸으로 상호 보완적임.

-당시 교회 안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성들도 있었음. (항상 어느 곳이든 있음)

-교회는 얼마든지 여성들의 분위기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음.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함.

-가정도 비슷한 논리로 남편의 뜻을 존중할 것을 요구함.

-가정을 벗어난 사회관계로 인한 남편의 입장이 있으므로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하지만 요즘은 여성 상위시대이므로 얼마든지 여성도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두 사람이 마찰이 있으면, 남편의 뜻을 따르도록 함. 당회는 3명이어야 한다는 원리가 중요함.

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교회든 가정이든 사랑의 법이 가장 중요함.
- 여성에게는 순종을 남성에게는 희생을 요구함. 서로에게 쉽고 편리한 것을 요구함.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 사람은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 사람의 영혼은 오직 마귀의 말로 더럽혀진다.
- 물로 씻어. 그릇은 물로 씻어내면 깨끗해진다.
-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끔하게 깨끗해진다.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남편과 아내는 갈등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관계여야 함.
-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도 하고, 모든 곤경을 이기게 함.
- 부부는 함께 여행하는 자들. 함께 산행하는 자들.

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보호하고 보전해야 함.
-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 서로는 상대방의 신체를 보호하고 보전해 주어야 함.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 교인들은 서로 보살피야 함.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남의 비밀이 크도다.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부부에게 적용하려는 것임.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가정에 관한 것이지, 가정 생활 전반적인 것에 이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임.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엡5:22-33)

\* 사랑과 존경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6:1-4)

-순종과 공경에 대한 가치 존중 먼저.

-가치관의 우월성과 유익 강조

-세속적 가치관과의 비교정신 병행 교육

-약속있는 계명, 복된 계명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